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정규직 전환 생취

7일 합의, 9일 총회, 13일 조합원 단결의 밤... “11월 15일까지 조합원 94명 정규직 기능직군 채용”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생취하고 공장으로 돌아간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11월 7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고용의무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견접근 했다. 지회는 9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합의서 찬반을 묻는다.



의안에 대한 만족감이 조합원마다 다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경민 교육선전부장은 “합의안에 대한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싸웠다. 9일 지회 총회를 소집해 조합원들의 뜻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원 사이에 ‘아쉽지만 승인하자’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11월 15일까지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한다 ▲회사는 11월 6일 이전 발생한 사안과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소송, 고소, 징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존 적용받던 임금수준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지회는 만도헬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취하한다.

이경민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합

지회는 노조와 투쟁에 연대한 단위에 방문해 고마움을 전한다. 지회는 9일 투쟁 문화제를 열어 투쟁 승리를 보고한다. 지회는 11일,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지회는 13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단결의 밤’ 행사를 열어 뜨거운 투쟁을 벌인 서로를 위로한다.

민주노총 9기 임원선출 직접선거 네 개 후보조 출마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후보조 등록...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투표

민주노총 9기 임원 직접선거에 네 개 후보조가 등록했다. 금속노조 소속 민주노총 임원 출마자는 네 명이다.

출마 후보조는 위원장-수석-사무총장 순으로 ▲기호 1번 김명환(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김경자(보건의료노조)-백석근(건설노조) ▲기호 2번 이호동(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고종환(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권수정(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기호 3번 윤해모(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손종미(민주일반노조연맹 민주연합노조)-유완형(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 ▲기호 4번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김창곤(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미숙(보건의료노조 부천성모병원지부) 등

이다. 민주노총 임원에 출마한 각 후보조는 11월 7일 제주본부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선거운동 기간 16개 지역본부별 합동유세를 벌인다.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1주일이다.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결선투표를 치른다.

“중형조선소, RG 발급·신규 수주 허용 가장 시급”

중형조선소 회생 정부 정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STX조선지회 RG발급 요구 농성 시작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지회장 고민철)와 성동조선해양지회(지회장 강기성), 노회찬 국회의원실,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가 11월 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STX조선지회는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두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신규 선박 수주 허용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STX조선은 두 곳의 선사에서 10척을 수주했지만, 최대 채권은행이자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의 RG 발급 지연으로 계약취소 위기에 몰렸다. 11월 24일까지 RG가 나오

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성동조선의 해외수주 영업에 채권단이 함께 나가 수주 영업에 간섭하며 계약 자체를 못 하게 한다고 폭로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RG 발급 기준 완화 ▲중소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마련 ▲국가 발주 ▲정책금융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노동자들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조선산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조선해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다.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STX조선은 이미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1년 새 조합원 수가 30% 줄고, 하청노동자가 반 이상 현장을 떠났다”라며 “지금 추세면 내년 4월 일

감이 없어 도크가 텅 빈다. 일감을 확보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성동조선은 11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도크가 빈다. 사측은 무급휴직 얘기를 현장에 흘리고 있다”라며 “이미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채권단은 현재 인력의 반을 더 잘라야 한다고 난리다.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조선소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STX조선지회는 11월 7일부터 RG 발급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는 11월 27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권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진정, 난 몰랐었네?

8일, 현대철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 “저임금 비정규직 없애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해야”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1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즉시 차별조사와 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 당진, 인천,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1만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4월 19일 인권위

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임금, 복지, 근무형태 등의 차별을 바로잡아달라고 진정을 냈다. 두 지회는 진정 후 일곱 달이 지나도 인권위가 실태조사와 차별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차별 처우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라며 “노조는 인권위에 현대제철이 자행하는 비정규직 차별 정책 조사와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 명절귀향비, 체력단련비, 자녀교육비, 하계휴양소 이용, 차량 할인지원, 의료지원 등을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고 있다. 성과급은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하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자본이 노동관계법, 파견법을 악용해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각종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지회는 법 제도 악용을 뿌리 뽑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